

## 전시서문

권한아, 갤러리나우

김현진은 이번 전시 [당신만이 불행한 세상]에서 그녀의 사진을 통해 개인 내면의 치료와 관객과의 소통 모두를 이루고자 한다. 삶의 순간들을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기술로서 시작된 사진의 역사는 현대예술의 새로운 미디어 탐구와 맞물리면서 회화적 붓질을 벗어난, 새로운 예술적 감각을 탄생시켰다. 사진기술의 발전은 회화를 넘어선 창작과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현대인에게 무의식표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카메라를 기능하게 하였다. 김현진의 사진작업은 이러한 사진의 새로운 역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작업방식에서는 디지털매체를 통한 회화적 구성방식과 추상적 감성을 재현하면서도 사진의 고유한 지표적 특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전시의 첫 번째 시리즈인 '자화상'에서 김현진은 그녀의 개인적 성찰을 초현실적 구성으로 가시화시키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억압과 여기서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의식에 대한 자기반성적 시각은 '자화상' 시리즈의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다. 방어적인 자세로 웅크려있거나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 손을 뻗고 있는 신체의 파편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우뚝 선채로 바람을 견뎌내고 있는 피사체 등 초현실적으로 표현된 형태들은 모두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그녀의 성찰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녀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직시한 이 지극히 개인적인 성찰과 치유의 과정은 내면을 벗어나 사진으로 복제되고 전시되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공감과 소통을 제안하고 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행위에서 경험한 사적인 치유의 감정을 증폭시켜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한 그녀의 의도는 두 번째 시리즈 '감정의 색채'에서 더욱 심화된다. 작가는 상징적 이미지들은 사라지고 추상적인 색채와 형태가 뒤섞인 표현방식에서 내포되어있는 감정적 요소를 통해 발화될 수 없는 내면의 시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화상' 시리즈의 구상적 이미지와 대비되는 추상적 표현방식은 송고를 물질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던 추상회화의 표현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언어적 설명이 불가능한, 발화될 수 없는 감정 또는 무의식을 드러내고자 했던 추상회화의 상징성과 맞닿아 있는 그녀의 작업방식은 디지털화된 평면적 이미지이면서도 내면의 깊이를 동시에 분출시켜 전통회화와는 또 다른 지각의 지평을 열어주려는 시도이다. 이 새로운 지평은 관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과 감상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녀에게 있어 카메라란 단순히 현대적인 이미지를 찍어내기 위한 기계가 아닌 자아확립을 위한 도구이자 타자, 관객과의 소통을 유도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그녀가 구축한 예술적 소통의 도구로서의 사진 이미지는 이번 [당신만이 불행한 세상]전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미학적 경험을 제공해준다.